

포커스 70년 전통 고창행복원, 마을이야기로 꽃 피우다

“고창 전설, 설화 그림책 만들어 세상에 알리겠다”

20년 간 꿈나무들 버팀목
“졸업생 생활고 가슴 아파”

고창=안병철 기자

“고창의 전설, 설화 등을 그림책으로 만들어 세상에 널리 알리겠다” 고창행복원은 40여명의 아동들이 꿈을 키우며 지역발전을 비롯해 재능개발, 사회연계에 남다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책임자가 된 박지환(65. 사진) 원장은 20년 넘게 행복원을 발원시키며 꿈나무들의 버팀목이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달마루 작은도서관’을 활성화 시켜 지역민과의 소통으로 장애물을 제거하며 ‘마을 이야기, 그림책’으로 방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고창지역 독서모임 ‘마을 이야기 그림책’은(본부 9월 6일자 12면) 동아리 회원들과 행복원 학생들이 ‘효감전’, ‘소반바위’, ‘묘양성’ 등을 직접 그림책으로 제작해 세상에 알렸다. 그 주인공들은 도서관 운영자 김정임

선생님을 비롯해 김용완, 이순규 직원, 김은경 동아리회장, 문영애 모양성해설사, 신명숙 리드인 원장, 엄수현 교수와 아내 김미진씨 등이 도왔다. ‘효자 오준과 샘물 효감전’ 그림책은 신림면에 내려오는 효감전을 ‘결음동무’ 소속의 임민지, 안설화, 임진서, 정지은, 이하람, 송하준, 송하윤 등의 학생들이 발표물 아래 그려낸 것이다. ‘병바위와 소반바위 이야기’는 아산면 반암마을에 있는 신비로운 바위를 ‘함께 걸음’ 소속 학생들이 산신령처럼 그려 낸 것이다. ‘전라도를 지키는 묘양성’은 ‘컬벗’의 이예스터 학생 등이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그려냈다. 그 결과 문체부의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서 발간한 ‘도서관 이야기’ 이번 11월호에 고창행복원 글마루산책이 소개되기도 했다. 이들의 그림책은 군립 성호도서관과 글마루 작은도서관에 비치, 대여되고 있다. 고창행복원은 전쟁 기간 1952년에 고아 27명으로 시작해 방인용 목사의 책임자에 이어 이초순, 강선자, 3대 박지환 원장에 이르며 21명의 직원들이 60여명을 돌볼 수 있는 보호아동의 기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조기 자립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들은 5대 안전교육으로 자기보호기술 교육을 비롯해 학습과 자립 활동, 악기를 통한 레인보우브라밴드 육성, 이삭장학금과 상조희망학급, 해외문화 탐방 등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올해 6명의 원생들이 16회에 걸쳐 제과제빵을 배워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환원하고 새고창로타리클럽의 후원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놀이프로그램을 통해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우리를 알고’를 김혜정 강사로 진행하고 자유중학교 양별 학생은 굿네이버스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후원으로 네일아티스트의 꿈을 갖게 됐다. 이외에도 홀트아동복지회 지원으로 ‘여기 같이 어머’ 요가와 고창교육지원청으로부터 토요마을학교에서 도예체험활동, 컴퓨터 수업, 우그림 미술동아리, 청소년 ‘메이커 교육’, 요리교실, 은누리 여름캠프, 그리고 마을의 전설을 찾아서까지 이르게 됐다. 이곳에 후원하는 손길도 현금도 비록 다양한 재능봉사, 상품 후원, 지역 농수산물, 지정환일삼피자, 빵이저씨 등이 훈훈한 지역사회에 전사가 되고 있다. 박 원장은 익산 출신으로 삼형제 장남으로서 어머니의 봉사활동을 본받아 다시



사회복지를 전공해 동신대학원에서 석사를 거치는 등 1999년부터 헌신 봉사의 삶을 살고 있다. 세 딸을 둔 그는 음지를 양자로 만들고 장한 아버지상으로 매년 원생들에게 신망을 쌓는 가운데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졸업생들의 목소리가 가끔 가슴을 아프게 만든다”며 “하지만 대부분 사회 적응뿐만 아니라 기동으로써 성장하는 모습이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임실군, 봉황인재학당 수강생 선발

임실군에향장학회가 지역 소재 중학교 재학생(중학교입학예정자)을 대상으로 2022년도 봉황인재학당 수강생을 모집한다. 내년도 선발인원은 관내 예비중 1,2,3학년 150명으로, 지원 자격은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내달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원서를 접수하고 11일 선발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시험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으로 시험응시자는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임실해야 한다. 수강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내년 1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방과 후 4시간 동안 국어, 영어, 수학 교과목 및 개인별 1:1 맞춤형 진로 진학 컨설팅 등을 받게 되며, 학생들의 늦은 시간 안전 귀가를 위한 택시 및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임실=박길수 기자



지구임원-클럽 4역, 미륵산 환경정화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지구(전북)는 28일 익산 미륵산 일대에서 김동근 총재 주관으로 2021-2022 회기년도 지구임원, 클럽4역이 함께 모여 환경보존을 위한 쓰레기와 오물 수거를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 행사는 매년 지구임원과 클럽4역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으나, 현시국의 엄중함과 코로나19가 장기간 되면서 환경보존에 우선순위를 하기 위해 환경정화로 대체해 실시하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근 총재, 정희용 제1부총재, 서성진 2부총재, 익산시청, 원로위원회 흥진기 위원장, 배국정, 하이대, 김전길, 이도희 전총재, 지구임원, 클럽 임원 등이 대거 동행해 미륵산 일대를 산행하면서 쓰레기와 오물 등을 수거했다. /박상래 기자



부안군안보단체협의회, '안보 패러다임 변화인식' 강연회

부안군안보단체협의회는 지난 25일 부안향군회관에서 2021년 안보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는 재향군인회 소속 윤병호 안보교수를 초청해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인식’을 주제로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국가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거시적 이해를 바탕으로 안보에 대한 미래지향적 논의 및 회원간 의견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송영일 부안군안보단체협의회장은 “이번 강연회를 통해 군민의 안보의식 강화 및 향토방위를 위해 적극적인 안보활동을 전개해 나가자”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항상 군민의 단합된 힘과 굳건한 안보의식으로 한반도 안보를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많은 군민들이 안보의 소중함에 대해 깨달을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고병하 기자



개벽장학회, 성적·복지·체능 장학금 2,100만원

개벽장학회는 지난 27일 을 하반기 장학금 2,100만원을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지난해 7월부터 장학사업을 시작한 개벽장학회는 지난해 12월 1,900만원, 지난 3월은 2,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 등 총 6,000만원의 장학금을 60명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장학생 선발 분야는 학업우수(성적)장학생, 꿈드림(복지)장학생, 특기(체능)장학생 세 분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 21명을 선정했다. 이영섭 이사장은 “지원자가 많아 선별과정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면서 “만원의 행복 나눔으로 앞으로 도움이 손길이 꼭 필요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섭 이사장은 개벽종합건설 대표이사과 전라북도농구협회장을 맡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봉사활동과 장학사업을 이끌고 있다. /북정권 기자

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이성수 교수, 메타버스·AI 콘텐츠 경진대회 전라권역 1위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자동화시스템과 이성수 교수가 ‘한국폴리텍대학 메타버스·AI 기반 아이디어 및 콘텐츠 경진대회’에서 전라권역 캠퍼스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주최로 ▲콘텐츠 개발 ▲플랫폼 활용 ▲아이디어 공모 3개 부문을 공모했다. 대회에서는 메타버스 및 AI에 대한 이해, 활용가능성, 창의성, 적합성 등에 평가 기준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대회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교육·훈련이 확대되는 여건 속에서 메타버스 및 AI 기술을 활용한 에듀테크 플랫폼을 구축하고 폴리텍 맞춤형 메타버스·AI를 적용한 다양한 활용사례를 공유하고 몰입도 높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개최됐다. /익산=고은영 기자



장수 드림스타트, 영유아 집중력 향상 교육

장수군 드림스타트팀은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6세 미만 영유아를 둔 드림스타트 가정 4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4회기씩 ‘아가야! 엄마랑 놀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야외활동이 어려운 영유아들의 집중력·창의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가족 간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양육자에게 지도·체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졌던 자녀교육을 직접 체험으로 쉽게 배울 수 있어 프로그램에 참가한 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서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와 강사가 직접 부모와 아동에게 감각인지발달 단계별 놀이학습 교구를 활용해 자녀와 함께 학습함으로써 아동의 사고력 및 인지발달을 도모는 물론 부모와 자녀 간 상호작용 기회 확대 및 애착관계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장수=유기종 기자



전북새마을회, 우수마을 뽑내기대회 시상

전라북도새마을회는 지난 26일 오후 2시 전북새마을회관에서 좋은 지역공동체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하는 ‘전북 최고의 공동체 마을’을 찾아 우수사례 수집 및 정보 교환을 위한 ‘2021 지역공동체 우수마을 뽑내기 전북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새마을지도자 40여명이 참석, 뜻을 같이하는 주민이 함께 계획하고, 실천하고, 누리는 현장중심의 새마을운동으로 좋은 공동체 만들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베풀어졌다. 지난달 15일까지 14개 시군 대표 우수마을을 공동체 추천을 받아 전주 노송동 선미마을, 정읍시 입암면 영안마을, 완주 이서면 대농마을 등 3개 마을공동체가 사례발표를 통해 최우수, 우수, 장려상 등 상장과 상금을 받았다. 또, 이날 오후 3시부터는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후원하는 ‘지식과 문화의 만남, 기본이 바로 서는 독서문화운동 실천’을 주제로 ‘대통령기 제41회 국민독서경진 전북예선 시상식’을 가졌다. 지난 9월부터 시군별 예선을 거친 우수 작품을 심사, 전북지사·전북교육감 상 등 50명의 단체 및 개인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종근 기자



원광대, 대학발전기금 릴레이 기부... 기금 조성 탄력

원광대학교가 개교 100년을 향한 발전기금 1,000억원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가운데 교내·외에서 기금 전달이 잇따르고 있다. 매일 릴레이 기부 전달식을 진행하는 원광대는 이날 열린 두 차례의 기금전달식을 통해 총 6,000만원을 전달받았으며, 이어지는 기금 기탁으로 발전기금 조성에 탄력을 받고 있다. 이날 기탁자는 먼저 최한길 자연과학대학장, 서연정공 이관재 대표, 원불교 유산 이성길 원로교부가 각각 1,000만원, 학부모 김영숙씨가 3,000만원을 전달했다. 유산 이성길 원로교부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꾸준히 모은 금액을 한 번에 대학 발전기금으로 내놓아 박수를 받았으며, 기탁자들은 한결같이 지방 명문사학으로서 원광대의 지속적인 발전을 염원하면서 기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전했다. /익산=유기종 기자

원광대병원, 전 교직원들에 친절 아카데미 교육

원광대학교병원은 지난 25일 대강당에서 전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2021 친절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향상과 개선을 도모해 고객이 만족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에게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친절 아카데미 교육에서는 김현숙 QI 팀장이 ‘환자경험 평가 및 친절 모니터링 대비’란 제목으로 의료서비스 구축을 위한 장기적 비전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환자와 고객을 대하는 의료계 서비스 형태의 패러다임이 환자만족, 환자감동을 넘어 환자경험을 중시하는 환자중심주의로 변천해 가면서 원광대병원에서도 친절 소양교육을 위해 원내에서 선정한 친절코디네이터 강사들이 직장 예절, 환자 경험, 감사 나눔 등 각종 교육 및 환자 의료서비스 향상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익산=고은영 기자



부안군, 부안댐 상류 수질개선 창포 심어

강살리기 부안군 네트워크는 지난 26일 2021년 도량살리기 운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부안댐 상류 지역에 비점오염원 유입 및 탁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창포 2,000주를 식재했다. 이날 창포 식재 행사에는 부안댐 상류 인근 주민과 K-water 부안권지사, 국립농업과학원, 전라북도 강살리기 추진단, 강살리기 시군 네트워크 등이 참여했다. 창포는 탄소흡수 등 수질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뿌리 조직이 강해 토양유실 방지와 생태복원에 적합한 식물이다. /부안=고병하 기자

무주군-산골문화재단, 북 토크 마당

무주산골문화재단과 무주군이 군민들에게 문화향유를 제공하기 위해 무주 여행 작가들을 초청, 북 토크 마당을 개최한다. 군은 지난달 30일, 31일 안성면 복지회관 2층에서 처음 선보인 문화마실 무주에서 진행했던 북 토크가 호응이 높아 다시 한번 진행하게 됐다. 이에 군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 안성면 복지회관 2층 문화마실에서 북 토크 자리를 마련한다. /무주=이형열 기자